

예술가가 도시를 바꾼다 : 문화클러스터의 현황 및 발전과제

박세훈(국토연구원 연구위원), 정소양(국토연구원 연구원)

- 최근 낙후된 도심에 예술가 공동체를 정책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도시재생을 도모하는 정책이 경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효과는 미미한 수준
 - 예술가 공동체인 문화클러스터는 경제적 측면의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,
 - 상업기능의 침투, 임대료 상승 등으로 문화예술기능이 오히려 축출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음
- 국내 문화클러스터는 자생형, 민간주도형, 정책지원형으로 구분되며, 대체로 역사가 짧고 예술가 네트워크도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임
 - 문화클러스터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예술가들의 사회네트워크와 지역사회를 연계·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

| 정 | 책 | 적 | 시 | 사 | 점 |

- 1 기존의 물리적 도시재생정책과 개별 예술가를 지원하는 문화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예술가들의 사회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공간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정책지원이 필요
- 2 물리적 도시정책과 예술가를 지원하는 문화정책이 지역에서 통합하여 운용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
- 3 예술가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참여공간 마련 등 문화클러스터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공간전략 마련이 필요
- 4 단시일 내의 급격한 물리적, 경제적 변화보다는 지역사회를 장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

1. 문화클러스터의 도시정책적 의미

● 도시정책으로 문화클러스터가 부상

- 최근 문화경제(cultural economy)¹⁾가 도시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부상함에 따라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도시성장 및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도시문화전략이 도시정책의 큰 흐름으로 대두
 - 예술가 공동체를 지원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전략이 국내외에서 시도되고 있음
 - 해외의 많은 도시들이 예술가 공동체를 기반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있으며(런던의 이스트엔드, 뉴욕의 윌리엄스버그, 베이징의 다산쯔 등), 국내에서도 인천, 대구, 광주, 부산 등에서 침체된 도심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
- 문화클러스터(cultural cluster)는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예술가의 창작공동체 및 관련 네트워크에 한정하여 다룸
 - 문화클러스터는 “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자기조직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문화예술의 생산 및 관련 기능의 지리적 집합체”로 정의됨
 - 산업화된 기능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산업클러스터(cultural industrial cluster), 문화 소비와 유통기능이 중심이 된 문화지구(cultural district)로 개념이 구분됨

● 문화클러스터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

- 문화클러스터는 경제적 측면의 직접적인 효과 외에도 여러 사회적 효과를 통해 도시재생을 촉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
 - 경제적 효과: 관광객 증가, 문화공연 티켓판매 증가, 소매업 매출 증대, 지가 상승 등
 - 사회적 효과: 지역 이미지 개선, 사회적 결속력 강화,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, 주민들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제고, 삶의 질 제고 등
- 한편 문화의 상업화 및 상업기능의 침투, 임대료 상승에 따른 예술가 구축(驅逐), 고소득층 거주지로 전환되는 젠트리피케이션(gentrification) 등의 부작용도 있음
 - 따라서 문화클러스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문화클러스터 정책의 주요 과제가 됨

1) 세계 문화산업의 시장규모는 2010년 1조 4천억 달러이며, 2015년 1조 8,7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됨. 한국의 문화산업 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세계시장의 2.4%에 불과함(PWE, 2011,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, 2011-2015).

2. 국내 문화클러스터의 현황 및 분포특성

● 국내 문화클러스터의 발달 배경

- 우리나라의 문화클러스터는 1980년대 이후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, 1990년대 이후 문화경제의 부상,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도시유희시설 활용, 정부의 문화예술 지원 확대 등에 힘입어 확산됨
 - 1980년대: 서울의 대학로와 홍대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인들이 집적하면서 초기 형태의 문화클러스터가 형성
 - 1990년대: 도시중산층 형성, 대중문화 팽창에 따라 자생적인 문화클러스터가 증가하였으며, 정부 정책지원에 따른 문화클러스터 형성이 시작(문화거리 조성사업 등)
 - 2000년대: 문화경제 부상에 따라 정부의 정책지원이 본격화되었으며 문화클러스터의 수적 증가와 유형이 다양화(폐교 활용, 근대문화유산 활용, 전통시장 활용 등)

● 국내 문화클러스터의 유형: 자생형, 민간주도형, 정책지원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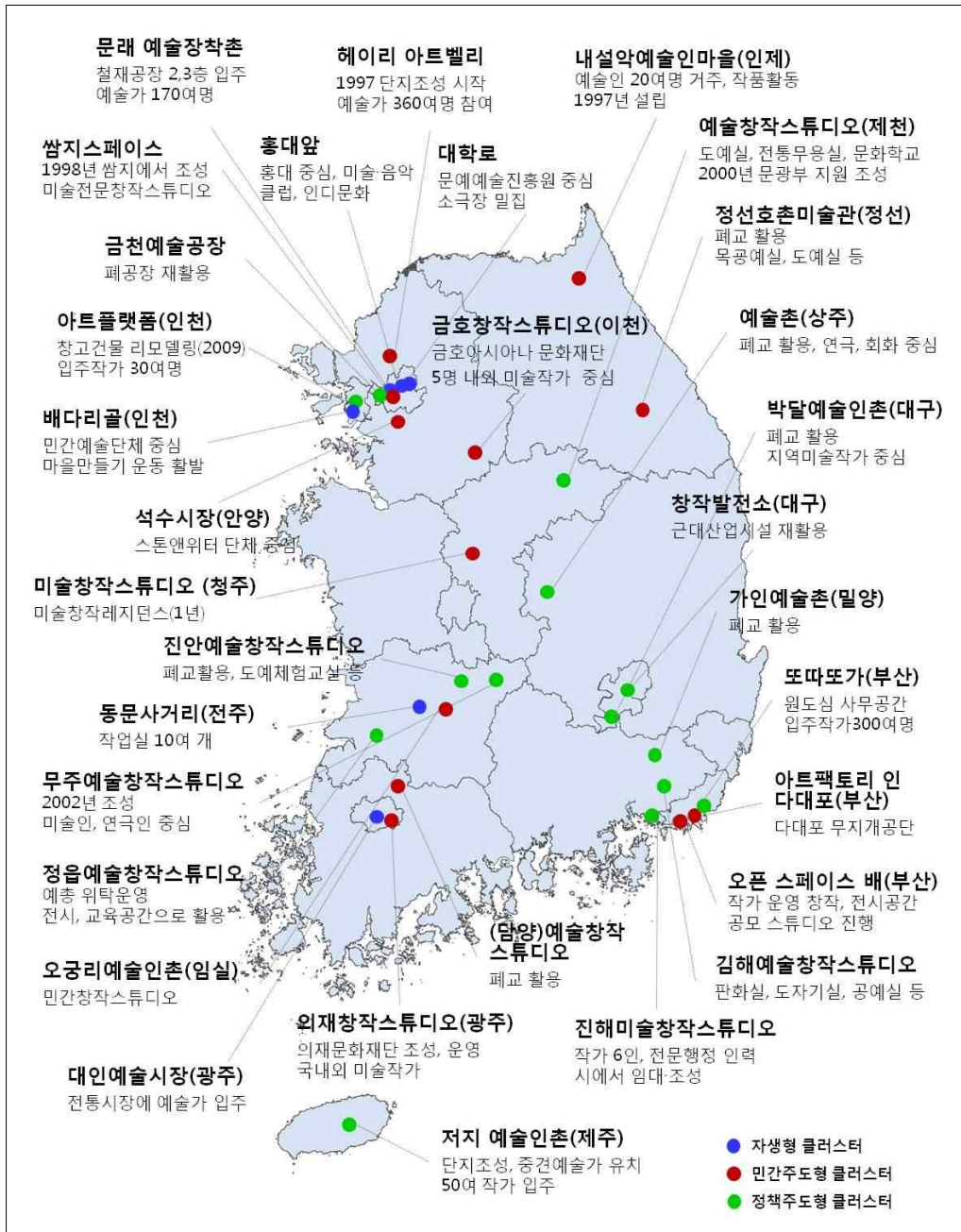
- [자생형 문화클러스터] 오랜 시간에 걸쳐 예술가들이 집적하여 자연스럽게 네트워크 형성
 - 지가가 저렴하면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입지하며, 구성원이 젊고 역동적이며 강한 내부 응집력을 가지고 있음
 - 도심지역에 위치한 상당수 클러스터는 상업화 및 재개발 위기에 직면해 있음
 - 사례: 서울 홍대 앞, 대학로, 문래 예술창작촌, 전주 동문사거리, 인천 배다리골 등
- [민간주도형 문화클러스터] 문화예술인들이 협력하여 단지를 조성하거나, 폐교 등에 집단 입주하여 클러스터를 형성
 - 독립적이고 여유 있는 창작공간을 선호하는 중견 예술인이 주요 구성원으로, 자생형에 비해 네트워크 밀도와 역동성이 낮고,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약함
 - 예술인들이 토지를 매입하여 창작촌을 건설하는 단지조성형과, 유희시설인 폐교, 산업시설 등에 집단으로 입주하는 유희시설 활용형으로 구분됨
 - 사례: 헤이리 아트밸리, 부산 아트팩토리 인 다대포, 임실군 오궁리 미술촌 등

- [정책지원형 문화클러스터]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인 지원, 도시재생 등의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예술가들을 유치함으로써 형성
 - 정책목표와 지역여건에 따라 전통시장, 구도심, 폐교, 공단 등 쇠퇴지역이나 유헴공간에 예술가 작업실, 갤러리 등의 시설 유치
 - 문화체육관광부의 ‘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’, ‘근대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’등이 추진 중이며, 각 지방자치단체도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
 - 대부분의 정책지원형 문화클러스터는 아직 역사가 짧고 예술가들의 네트워크가 취약하여 의도하는 도시재생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나,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사업도 나타나고 있음(부산 토파또가 등)
 - 사례: 인천 아트플랫폼, 부산 토파또가, 광주 대인시장, 대구 문화창조발전소 등

[표 1] 문화클러스터의 유형별 사례

명칭	문래 예술창작촌	헤이리 아트밸리	인천 아트플랫폼
전경			
유형	자생형	민간주도형	정책지원형
개요 및 특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2000년대 공장이전과 재개발로 업체들이 빠져나간 철공소에 홍대, 대학로 등지에서 온 젊은 예술인들이 작업실을 설치하면서 형성 • 100여 곳의 작업공간에 시각, 공연, 시나리오, 문화기획 등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 약 170여 명이 활동 • 서울시에서는 2007년 인근에 문래예술공단을 건설하여 현장의 예술가를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997년 370여 명의 예술인들이 15만 평의 부지를 매입하여 창작·주거공간으로 조성 • 유사한 형태의 단지조성형 예술마을 중 가장 규모가 큰 사례로 주택, 작업실, 박물관, 갤러리 등이 조성됨 • 헤이리는 참여예술가 수가 많고, 수도권에 소재해 있어 관광객이 많고 활성화되어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인천광역시 구도심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개항기 근대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복합예술 공간 조성 • 창작스튜디오, 공방, 자료관, 전시장, 공연장 등 총 13개 동의 규모로 조성 •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와 연구자들의 예술창작 및 연구활동, 교육 및 예술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과의 소통 도모

[그림 1] 전국 문화클러스터 분포현황



● 국내 문화클러스터의 특징

- 도시의 문화적 기반이 취약하여 자생형 문화클러스터 수는 적은 반면, 민간주도형 혹은 정책지원형 문화클러스터가 많음
 - 민간주도형과 정책지원형 클러스터는 역사가 짧고 소규모이며, 아직까지 성숙된 네트워크를 갖지 못함

- 도심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자생형 문화클러스터는 재개발 및 상업화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(홍대 앞, 문래예술촌, 인천배다리골 등)
 - 물리적 자산가치를 중시하는 도시개발 관행으로 예술가 네트워크의 가치와 중요성은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
- 도심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정책지원형 문화클러스터의 대부분은 예술가 공동체가 내부지향적이고 고립되어 있어 지역사회 효과가 미미함
 - 정책지원형 문화클러스터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지원전략이 필요

3. 문화클러스터의 지원 · 육성을 위한 과제

- 예술가들의 사회네트워크 활성화를 지원
 - 기존의 도시재생정책은 물리적 측면의 환경개선에 치우친 반면에, 문화예술지원정책은 예술가들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어 예술가 사회네트워크의 가치를 간과함
 - 단순 창작공간 제공이 아니라 예술가 사회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(예술가 공동작업 지원, 지역사회 중심의 작품활동 장려, 지역사회 연계프로그램 활성화 등)
- 도시계획과 문화전략의 통합적 추진
 - 문화클러스터 정책은 도시의 폐산업시설, 재래시장, 폐교, 근대문화유산 등 도시의 물적 자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도시계획과 문화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필요(많은 도시문화전략이 도시부서와 문화부서 간의 불협화음 때문에 실패로 끝남)
- 문화클러스터의 파급효과 확산을 위한 공간전략 마련
 - 공간적으로 고립된 곳보다는 적정 유동인구가 확보된 지역 선택
 - 예술가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카페, 서점, 공방 등 ‘참여형 공간’ 마련
 - 가시성을 확보하고 거리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공간배치 등
- 점진적인 지역사회변화를 도모하는 정책
 - 단시일 내의 급격한 물리적, 경제적 변화보다는 장기적으로 커뮤니티 활성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할 필요

●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박세훈 연구위원 (shpark@krihs.re.kr, 031-380-0220)

●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정소양 연구원 (jungsy@krihs.re.kr, 031-380-0176)